# 지역특화산업 육성정책

김희재
(주)스트라베이스 총괄이사
klnoa@strabase.com

## 지역특화산업 육성정책의 개요 및 추진현황

지역특화산업은 국가경제의 뿌리산업으로 당해 지역의 경쟁력을 결정하고 지역전체의 성장 및 국가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기반산업(basic industry)으로서 지역의 자원과 노동력을 사용하여 탈지역화된 제품을 생산, 제공하는 특성을 바탕으로 지역적으로 비교우위를 가지면서 지역내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등 지역경제의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산업을 의미한다. 지식경제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산업 육성정책(이하 지역특화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대표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지역발전의 핵심주체인 산·학·연이 중심이 되어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 및 자립형 지방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1995년 지역대학에 구축된 장비활용을 통해 지역기업을 지원하는 지역혁신센터 기반조성사업(이하 RIC사업)을 시작으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지역연고자원의 산업화를 위한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이하 RIS사업), 지역연고산업의 산업화 지원 연구소 설립을 위한 지자체연구소 설립지원사업(이하 RRI사업)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

▶ 지역특화사업의 추진현황 및 사업내용

*추진현황*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
|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RIS) | | |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RIS)지역혁신과제사업 |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RIS)지역혁신과제사업 (RRI)지자체연구소 |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RIS)지역혁신과제사업 (RRI)지자체연구소 (RIC)지역혁신센터 |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RIS)지역혁신과제사업 (RRI)지자체연구소 (RIC)지역혁신센터 |

*사업내용*

H/W 연구소 건축 장비지원 RRI
· 지역 연구소 설립
· 연고산업의 산업화 지원

H/W 장비지원 응용R&D기술지원 RIC
· 대학내 기술센터 조성
· 지역기업 산학기술지원

H/W R&D인력양성 네트워킹마케팅 RIS
· 지역주체간 협력
· 연고사업의 산업화

| 사업명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지역 | 산업분야 | 사업기간 | 지원과제 |
|---|---|---|---|---|---|---|---|
| RRI 지자체 연구소 | 기반조성 | 기반구축 | 건물/장비 | 16개 | 특화산업 | 5년 | 19개 연구소 |
| RIC 지역혁신 센터 | 기반조성 | 기반구축 | 장비 | 16개 | 특화/전략 | 10년 | 총 127개 센터 (만93개) |
| RIS 지역연고사업 | 패키지(기반조성+사업화촉진+기술개발) | 인력양성 | 교육 | 16개 | 특화사업 | 3년 | 총 126개 센터 (만95개) |
| | | 연계활동 | 교류/홍보 | | | | |
| | | 기업지원 | 마케팅/기술지원 | | | | |
| | | 기술개발 | 제품 | | | | |

RIC사업은 지역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장비 구축과 더불어 산업화가 시급한 분야의 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지방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RIS사업은 지역별 특화가능한 산업분야를 발굴, 고부가가치화 및 브랜드화를 위한 기술 개발, 사업화, 마케팅 지원 등 소프트웨어 지원 중심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RRI사업은 기초지자체(시 · 군)가 중심이 되어 지역연고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필요한 산업화지원 연구소 설립 등을 지원하여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한 지역의 기술혁신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지역특화산업 육성정책의 성과 및 과제

현재까지 추진된 지역특화사업의 성과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책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시군구 등 기초생활권에 지역특화산업 발전을 선도할 지역기술혁신 기반을 조성하였다는 점이다. 전국 234개 시군구를 기준으로 RIC는 총 127개 센터를 지원, 현재 93개 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며, RIS는 총 126개 사업단을 지원, 현재 95개 사업단이 운영 중에 있고, RRI는 총 19개 지자체 연구소를 설립, 운영 중에 있는 등 지역특화산업 및 기업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둘째, 지역기업과의 공동R&D, 기술지원 등 지역특화산업 기술역량 강화 제고 측면이다. 원주 연세대첨단의료기기 RIC의 경우, 군사도시 원주를 의료기기산업의 메카로 육성('02~'09년 동안 의료기기업체 280% 증가, 생산액 542% 증가, 고용 329% 증가)하는 등 지역브랜드 및 위상 제고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셋째, 지역내 특화자원의 제품화를 유도하여 향토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의 경제성장 기반을 구축하였다는 점이다. 니트산업연구원 RIS의 경우, 지역기업인 S社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한지사(絲) 신섬유소재를 개발하여 250억원의 신규시장을 개척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지역특화자원의 산업화를 통해 지역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구성원의 지역자립화 의식 개선 및 공동체 의식 강화에 일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이나 산업에 한정되어 지원하는 칸막이형 정책체계로 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 지역특화사업내 세부사업간 연계협력 미흡으로 정책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점, 그동안의 시설 및 장비 구축 등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에 자원이 집중되어 지역특화산업의 본격적 육성을 위한 특허, 첨단융복합기술, 연구노하우 등 소프트웨어 지원역량이 미흡하다는 점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역특화사업의 성과를 이어나가고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 정책틀에서 벗어나 지역특화산업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지역 및 지원체계를 개방하고 융복합기술을 지원하는 개방 · 융합형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업추진 주체간의 정책공유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네트워크 구축과 정책 및 산업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 프로세스의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의료산업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 지역특화자원의 제품화 성과인 한지사 의류